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본격화

1단계 환경정비공사 착공...2022년까지 380억 투입 홍수·수질 개선...관광·문화 접목 시민 친수공간으로

광주시가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에서 이용섭 시장, 감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구청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조성 환경정비공사(1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수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까지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1급수 수준인 제4수원지 원수 1만6000t과 광주천 주변 대형건물 지하수 1350t을 매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 110억원을 들여 관로를 설치하고, 하루 10만 규모의 하천유지용수 여과시설에는 환화·응집시설을 추가해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평균 II~III급수 수준인 광주천 수질을 II급수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2~3단계 사업은 270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상무교 부근 덕흥2보, 동천교 부근 유촌보, 태평교 부근 태평보(낙차공) 등 고정보 3곳도 가동으로 교체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고정보와 달리 가동보는 수시로 높이 조정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방류로 오염물질 퇴적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호우 시에는 완전 개방해 홍수위를 최대 60cm까지 낮출 수 있다.

하천 동·식물을 위한 전용공간도 마련한다. 영산강 합류점-치평교 구간(우안) 400m 구간에 역새 등을 식재해 사람의 접근을 막고 동·식물의 활동터전도 배치한다.

또 문화와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광천2교-광암교 부근 하천 둔지에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새로운 나들이 명

소로 꾸밀 예정이다.

남광교와 중앙대교 부근에는 제4수원지와 대형 건물 지하수가 공급되는 친수시설을 설치한다. 광천1교-발산교 구간 천변좌우로 하부와 양동시장 주변, 양림역사문화마을 부근 등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하천 곳곳에 남천, 수수꽃다리 등 관목류 4만주와 원추리역새와 같은 지피식물 7만4000주를 풍성하게 식재한다.

이 밖에도 광주천을 무대로 공연과 미술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아리랑문화물길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보존공간으로, 고유의 문화와 공간을 담아내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체험휴식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우리 시민들도 깨끗한 광주천, 시민이 찾고 싶은 광주천, 수달이 안심하고 사는 광주천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020년 우수중기인·기술장 선정

우수중기인 5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세무조사 유예 김부곤·이영재·임용택 씨 기술장 3명, 장려금 600만원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0년 우수중기기업인 5명과 기술장 3명을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우수중기기업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우수중기기업인에는 ▲엔피닉스㈜ 강상도 대표(43) ▲㈜현대하이텍 김용구 대표(57) ▲㈜더하이 김경기 대표(40)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54) ▲동진기업(주) 양오열 대표(47)가 선정됐다.

우수중기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과 이자차액 추가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2종의 금융·세제·행정 혜택이 2년간 부여된다.

광주시는 또 지역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

는 기술인 중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대상으로 기술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광일기공 이영재(58) 씨 ▲㈜원진기업 임용택(64)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시는 기술장에게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용섭 시장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발전에 힘써온 수상자들의 혁신적 리더십과 장인정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기술개발과 품질관리 활성화 등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쓰지 않는 에코백 '부메랑' 기부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 19일 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지역 내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부메랑 에코백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사회혁신플랫폼(행정안전부 민관 연계 협업플랫폼)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부메랑'이란 이름처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에코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사용토록 하고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3일~12월18일...비대면 인터넷·전화조사 우선 진행

광주시는 "지역 내 농업·임업·어업 가구 및 가구의 기본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해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3일부터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1960년 농업총조사를 시작으로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로 분리해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통합해 5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시점은 오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내 모든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농림어가 변화 및 삶의 질, 경쟁력을 알기 위해 농가 46개, 임가 23개, 어가 29개 항목을 조사한다. 광주시는 2015년에도 1만 3000여 가구를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먼23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한 후 미참여 가구에 대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재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인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농림어가의 구조변화 및 각종 정책 활용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렌터카 불법대여 단속 연장

수능일 끝나고 내달 11일까지

코로나 방역실태도 점검

광주시는 "자차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렌터카·카셰어링 대여업체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연장은 수능이 끝나고 동시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매년 수능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

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등 확인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렌터카 운행 이후 방역실태도 철저히 이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순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수능 이후 불법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렌터카 방역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장 쓰레기 걱정마세요 25일~12월 17일 특별처리

광주환경공단은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김장철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12월 18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집중 수거기간'인 오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반입시간을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율을 평소보다 20% 이상 늘려 최대 120%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공단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450톤씩 처리하고 있으나, 김장철에는 하루 54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근무자를 배치해 안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장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